



# 힘있는 지도자가 필요할 때이다

It is the Time to have Leader with Power

최동규 /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  
by Choi Dong-Kyu

일정수의 인원으로 나누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일단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면 건축사들의 위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제를 토의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참여인원 숫자만큼 튀어나온다면 그런 단체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단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건축사의 위상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때야말로 비전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가까운 거리라도 재수없으면 너무 늦어져 낭패를 보기가 일쑤다. 한때 교통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행정개혁쇄신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건의할 기회가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의서를 보낸 적이 있다.

자동차회사에서 기를쓰고 만들어내는 자동차들은 수출하는 것 빼고는 다 길거리로 나올 것이고, 자동차 판매사원들은 잠자리에서도 차파는 것에 골몰할테니, 그 엄청난 판매 욕구를 누가 막을수 있으며, 또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차를 사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욕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결국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례해서 도로의 확충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교통정체는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차량통행을 제한하자고 했던 것이다.

교통정체가 일상생활에 주는 피해는 이미 그 경제적 손실이 수치로 나와있지만, 그외에 정신적으로 받는 피해는 수치로 나타낼 수조차 없다.

결국 이런 통행제한을 하지는 나의 제안에 대해 얼마후 통행제한은 불가능하다는 맥빠진 답신이 도착했다. 나는 도대체 이 도시가 통제능력이 상실된 도시가 아닌가 하는 무기력감을 맛보았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을 떠올렸다. 그는 독재를 하는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를 국민들이 탓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가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 결국 국민모두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인기없는 정책은 절대로 하지 않는 나라이니 교통정책에 대해서만은 지도자는 있으나 지도력은 없는 것과 같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몇년전 호주에 본사를 둔 리서치 회사에서 자문해줄 일이 있으니 오라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다.

이미 그 자리에는 나말고도 다섯명이 더 있었는데 나이는 비슷하고 직업은 다양했다.

곧 그 회사직원의 진행에 따라 질문과 그에 대한 여섯 명의 대답이 아주 빠르게 오갔고 한참후에 몇가지 중요한 원인이 압축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 신용카드회사에서 다른 카드사에 비해 유독 실적이 저조한 원인분석을 이 회사에 의뢰한 것임을 알았다. 참가 인원을 여섯명으로 제한한것도 의견수렴에 최적의 인원수라는 것이어서 의견수렴방법이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브레인 스토밍인 것을 알게되었다.

나는 이때의 경험을 살려 2년전 사무실 망년회 때 1박 2일 일정으로 직원들과 묵으면서 다섯명씩 조를 짜 몇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고, 이 결과에 따라 불거져나온 내용들을 심각하게 깨닫고 그중의 몇가지는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앞서의 두가지 이야기중 첫번째 이야기는 서울에 살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을 맞본 경우의 예이다.

두번째 이야기는 조금더 좁혀진 사회인 나의 사무실에 관계된 이야기이다.

그리고 브레인 스토밍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맞보았던 신선함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제 내가 속해있으며, 또 때로 비난도 해보는, 그러면서도 애정을 갖고 대해야만 하는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서울건축사회에 관여하면서 협회 내부사정을 조금 알게된 나는 우리협회가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으로 매진해 갈 수 없는 조직과 구조로 되어있음을 알고 앞서 교통난에 대한 나의 제안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무기력한 답변을 듣고 실망한 것과 같은 심정을 갖게 되었다.

전국에 있는 개업건축사의 수가 이미 오천명을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의 제도로는 사협회를 이끌고 갈 정말 유능한 회장을 뽑을 수 있게끔 되어있지 않는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뽑히기는 힘들지만 한번 뽑히면 권한을 어지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단 회장이 되면 그가 내리는 결정에 파워가 있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회장 밑에 이사회라는 의결기구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모임에서도 토의를 해보면 참여인원 숫자가 작으면 작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참여인원 숫자만큼 나온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면 앞서 언급한 리서치 전문회사처럼 일정수의 인원으로 나누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일단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면 건축사들의 위상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문제를 토의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참여인원 수만큼 튀어나온다면 그런 단체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단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건축사의 위상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때야말로 비전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회장을 떠 받치고 있는 이사회 의결수립 방법이 신선하고 효율적으로 되어야만하고 일단 결정된 것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만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훈련된 의결기구와 또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